



인 권 영 화 학 습 지 도 안

# 별별이야기2

2 ☆ 2

여섯빛깔 무지개



# 무지개는 일곱빛깔? 아니, 여섯빛깔? 다섯빛깔? 아니, 아니, 두 빛깔?

〈별별이야기2〉는 부제인 ‘여섯 빛깔 무지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섯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감독들이 각기 다른 주제들(시각장애인, 남성 콤플렉스, 여성과 육아,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 등)을 다양한 형식과 기법으로 창작해내었다. 다양한 작품들이 하모니를 이뤄 무지개빛깔 만큼 다채롭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한국에서 무지개는 통상 일곱가지색으로 굳혀져 있지만 서양에서는 남색을 제외한 여섯 가지색, 멕시코 원주민인 마야 족에겐 다섯 가지 색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두 세 가지 색으로 본다고 한다. 이렇게 ‘여섯빛깔무지개’라는 제목은 무지개 색 하나에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오래도록 굳어진 관행과 편견을 새로운 시각에서 돌아보고자 했다.

시각장애인 명선이의 출근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까지 얘기하는 ‘세 번째 소원’ (안동희/류정우 감독), 포경수술을 둘러싼 남성콤플렉스와의 한판 승부 ‘아주까리’ (홍덕표 감독), 출산휴가 하나 신청했을 뿐인데 퇴직을 권유받는 직장인 여성 은수 이야기 ‘아기가 생겼어요’ (이홍수/이홍민 감독), 필리핀과 한국의 거리보다 더 고민줄이 긴 다문화가정 소녀 은진 이야기 ‘샤방샤방 샤랄라’ (권미정 감독), 천하의 신타도 인간세상에선 차별 받는다는 〈메리 골라스마스〉(정민영 감독), 서른 즈음엔 누구든 피해가기 힘든 결혼압박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성소수자 이야기 〈거짓말〉(박용제 감독), 이렇게 여섯빛깔의 작품으로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는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인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별별이야기2-여섯 빛깔 무지개〉는 놀라운 감수성을 무기로 “당신이 나라면” (If you were me)이라는 가정 아래 개성 강한 비주얼과 참신한 상상력으로 인권과 차별을 날카롭게 묘사하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랑스러운 애니메이션이다.

별별이야기2  
☆  
여섯빛깔 무지개

## 손과 발 그리고 마음으로 그려낸 2년의 제작 기간! 여섯 명의 감독들이 몸으로 체험한 현실을 필름에 담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업영화 감독부터 국내외 영화제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예 감독에 이르기까지 매년 ‘시선 시리즈와 ‘별별’ 시리즈에 참여한 감독들은 연출섭외 0순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감독들이다. 각자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품앗이 하여 참여한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각 감독들은 그저 이름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남을 작품에 부끄럽지 않을 깊이와 개성 있는 독특한 시선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번 <별별이야기2-여섯 빛깔 무지개>는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대두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세심한 눈길로 보듬는다. 또한,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과 육아, 사내대장부콤플렉스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십분 활용,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독특한 캐릭터와 다채로운 기법으로 선보인다.

2006년 시작된 <별별이야기2-여섯 빛깔 무지개>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린 데에는 머리만으로 이해한 영화를 만들지 않으려는 감독들의 고집과 욕심이 한 몫 했다. <세 번째 소원>의 안동희, 류정우 감독은 시각 장애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단체를 수차례 방문해 사례조사를 했고,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시각장애인들이 일하는 안마시술소를 방문하기도 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으며, <사방사방 샤랄라>의 권미정 감독 역시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며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자원봉사까지 하며 아이들과 끈끈한 유대를 가졌다. 자료조사 과정 속에서 감독들은 비단 영화의 소재나 사례들만을 수집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간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차별의 시선을 인식하는 귀중한 체험이 되었다며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다

손과 머리로 만든 작품들이 아닌 손수 발로 뛰고 가슴으로 느낀 2년의 시간은 고스란히 감독들의 영화 속에 담겨, 차이일 뿐인데 부지불식간에 차별한 것에 대해 뒤돌아보게 하고, 강요하지 않지만 절로 깨닫게 하는 울림을 줄 것이다.



## 애니메이션 강국의 저력! 입맛대로 맛보자? 다양한 감수성, 놀라운 기법들이 총망라 된 애니메이션의 향연!

매년 한 편씩 관객들을 찾아간 지 6년째, 관객들을 만난 인권 옴니버스 프로젝트도 벌써 다섯 편에 이르렀다! 〈여섯 개의 시선〉부터 점점 높아져가는 대중들의 관심은 매년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시의 매진 행렬과 높은 좌석 점유율로 입증된다.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는 2007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관객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트웍(art work)과 인권감수성의 다채로움과 깊이에 감탄했다. 이어 2008년 6월에는 행사 때마다 20만명이 찾는 세계최대의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초청 상영되었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인 〈별별 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를 통해 관객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재미뿐 아니라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터들의 섬세한 기술력과 독특함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도 누리게 된다.

그림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기법들이 총망라된 아름답고도 서정적인 영상미는 관객들에게 이야기의 힘과 더불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오늘을 엿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게 할 것이다!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2008년, 이제 매 년 기다려지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2002년 영상 매체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드높이고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대중적인 접근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영화 프로젝트를 발족시키면서 그 해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70년대 ‘대한 뇌우스’를 떠올리며 ‘계몽 영화’가 아닌가 га우뚱하기도 했다.

〈여섯 개의 시선〉을 필두로 당대 내로라하는 감독들이 총출동하여 만들어진 〈별별이야기〉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은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 초청 상영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기대감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렇게 ‘시선’ 시리즈와 ‘별별’ 시리즈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공감은 해가 갈수록 그 이해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관객들의 호응에 부응이라도 하듯 대한민국 대표 감독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더욱 다양해진 주제와 표현방식으로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여 관객들에게 감독들의 색깔과 재능을 종합선물세트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 인권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에 이어 2008년에는 〈시선 1318〉이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인권영화프로젝트의 명맥을 이었다. 앞으로도 인권영화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이다.

인 권 영 화 학 습 지 도 안

# 별별이야기2

여섯빛깔 무지개

- 첫 . 번 째 . 무 지 개 세 번째 소원
- 두 . 번 째 . 무 지 개 아주까리
- 세 . 번 째 . 무 지 개 아기가 생겼어요
- 네 . 번 째 . 무 지 개 샤방 샤방 샤랄라
- 다섯 . 번 째 . 무 지 개 메리 골라스마스
- 여섯 . 번 째 . 무 지 개 거짓말





첫 번째 무지개



# 세 번째 소원

The Third Wishes

감독 안동희 · 류정우 상영시간 13분 제작방식 2D 디지털 애니메이션



줄거리

“앞이 보이게 해주세요.

요정 맞아요? 소원이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느 날, 시각장애인인 명선에게 ‘소원실행위원회’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타난다. 요정은 어서 소원을 이뤄주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 욕심으로 명선에게 빨리 소원을 얘기하라고 다그치지만, 명선은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 외 다른 소원은 필요치 않다. 어쩔 수 없이 명선의 하루에 동행하게 되는 요정. 요정은 처음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명선이 답답하기만 한데,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명선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엉겁결에 두 가지 소원까지 날아가버리고,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만 남은 상황, 명선은 무슨 소원을 부탁할지 고민하며 밝은 길을 걸어간다.

## 내용이해

아침에 울리는 휴대폰 알람소리는 늘 반갑지 않습니다. 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명선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늘 있는 일인데 오늘의 명선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15살 때 빌었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요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정이 갑자기 명선의 이름을 불러 깜짝 놀란 명선은 아직 잠도 덜 깨서 얼떨떨한 가운데 ‘누구냐’고 묻습니다. 요정은 ‘보면 모르냐’고 되묻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명선에게는 곤란한 질문입니다. 비장애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시설, 언어 등이 장애인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아무 의심 없이 익숙했던 것 만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명선은 당연 앞이 보이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지만 요정은 일단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계약서를 내밉니다. 눈으로 읽을 수 없는 명선이 요정에게 대신 읽어주거나 점자로 씌여진 계약서를 요구하지만 요정은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냥 서명하라며 관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명선이 서명할 계약서를 더듬고 서명을 하는 동안 명선의 방이 보여집니다. 인형, 책, 컴퓨터, 화장품, 벽에 붙여둔 메모지... 방 모습이 어디서 본 듯 익숙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을 뿐 명선도 또래의 여느 여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이 보이게 해달라는 소원은 불가능하니 다른 소원을 빌라는 요정에 말에 썰쭉해진 명선은 출근 준비를 합니다. 흰 지팡이가 어둠속에서 노란 황금빛 길을 만듭니다. 명선은 볼 수 없지만 노란색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은 명선에게는 황금보다도 빛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유도블럭은 끊어져 있거나 공사 때문에, 혹은 짐 등으로 가로 막혀 있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황금색 유도블럭 따라 천천히 걷는 명선의 발걸음이 답답했던 요정은 지름길로 가자며 다짜고짜 명선의 팔을 잡아줍니다. 그 바람에 지하철역으로 가는 명선의 머리 속 지도가 우르르 무너집니다. 요정이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었겠지만 타박타박 안정된 걸음걸이로 가던 명선은 허둥대게 됩니다. 이윽고 명선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요정의 팔을 잡고 걷겠다고 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명선이 까다롭게 군다고만 생각했던 요정이었지만 명선의 말대로 하자 걸음걸이가 훨씬 편해졌음을 느낍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공익근무요원도 요정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일방적으로 행해졌기에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거지요.

우여곡절 끝에 원하는 역에 도착한 명선.... 요정은 지름길이라며 유도블럭도 없는 시장길로 명선을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명선을 위해 시장풍경을 생생하게 설명해주던 요정이 돌연 명선을 혼자 내버려둔 채 대폭할인행사를 하는 옷매장으로 달려가버립니다. 유도블럭도 없는 혼잡한 시장에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명선이 한 짐꾼과 부딪힙니다. “길 좀 똑바로 보고 다녀!”라고 소리치는 짐꾼의 평범한 말이 볼 수 없는 명선에게는 어느 때보다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당황한 명선은 이곳저곳에 부딪히며 시장상인들의 눈총과 원성을 삽니다. 볼 수 없기에 타인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수근대는 작은 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따갑습니다.







## 생각해볼까요?

1. 처음 요정이 명선 앞에 나타났을 때 왜 감독은 명선의 방을 찬찬히 보여줬을까요?  
**힌트** > 명선이 시각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과 사는 모습은 비슷함
2. 요정이 빠른 길을 알려주겠다고 다짜고짜 명선의 팔을 잡고 가자 명선은 어떻게 했나요? 명선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선의 말대로 하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힌트** > 시각장애인을 돕겠다는 마음에서 함부로 팔을 끌어서 안내하면 시각장애인이 안정된 걸음을 걸을 수 없다고 함
3. 공익요원은 명선이 지하철에 타려는 건지도 모르고 명선을 출구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공익요원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해봅시다.
4. 명선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명선이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힌트** >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함. 그래서 여성의 경우 화장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함.
5. 명선과 함께 다니는 사이 요정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힌트** > 작품 전반부에 명선을 팔을 함부로 잡아끌던 요정이 후반부에 가면 명선의 팔로 자신의 팔꿈치를 잡게 만듭니다.
6. 명선은 세 번째 소원으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명선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지 이야기해볼까요?

### 관련작품

- <여섯 개의 시선>중 ... 대륙 횡단 |여균동 감독|
- <별별이야기>중 ... 낮잠 |유진희 감독|
- <다섯 개의 시선>중 ... 언니가 이해 하셔야 돼요 |박경희 감독|





## 참고자료

### 인권위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필요”

인권위는 2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교사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차 시험과목인 교육학(60분)은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전공(150분)은 20분을 연장한 170분으로 1.13배, 2차 시험과목인 논술(60분) 및 학습지도안(60분)은 각각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시험시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는 시험의 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비교해 형식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 보다 2~3배 느리고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어 직접적인 시험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 한다”면서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시험시간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모씨(21.여) 등 5명은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사법시험이 1.5배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험 시간 연장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07-07-25 뉴시스 배민욱기자

## 다르다와 틀리다

사뭇 다른 말인데 요즘 너무나 많이 헷갈려 쓴다. 이는 국어사전 탓이 아니다. 사전들은 헷갈리게 풀이하지 않았다. 이것을 헷갈리도록 한 것은 내 것을 뺀 채 남것만 좇아서 살아온 우리네 삶이지만, 국어교육 탓도 들추지 않을 수 없다. 국어교육이 줄곧 우리 말의 노른자위인 토박이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 왔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드러나는 모습을 서로 견주어 풀이하는 그림씨 낱말이고, ‘틀리다’는 해놓은 일을 과녁에 맞추어 가능하는 움직씨 낱말이다. “한 가지에서도 아롱이 조롱이가 열린다더니 같은 부모한테 난 언니 아우가 어찌 저리 다를까?” “아니, 어제 내가 다시 해놓은 계산에서도 틀린 데가 있었습니까?” 보다시피 ‘다르다’는 언니와 아우의 모습을 서로 견주면서 쓰고, ‘틀리다’는 해놓은 셈을 사실이라는 과녁에 맞추면서 썼다.

두 낱말이 헷갈리는 데는 까닭이 있다. 둘 다 견주기를 하기 때문이다. ‘다르다’도 견주기를 해서 나타나고, ‘틀리다’도 견주기를 해서 가려난다. 그러나 ‘다르다’는 두 가지를 서로 견주어 나타나고, ‘틀리다’는 과녁이나 잣대와 견주어 드러난다. 아무런 잣대도 없이 두 가지를 나란히 견주면 ‘다르다’와 ‘같다’로 갈라지고, 어떤 과녁이나 잣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견주면 ‘틀리다’와 ‘맞다’로 가려진다. 이런 뜻가림을 내버리고 요즘은 덮어놓고 ‘틀리다’고만 한다. 그만큼 마음은 무뎌지고 삶도 거칠어진 것이다.

한겨레 2006-10-09 김수업/우리말교육대학원장



두 번째 무지개



# 아주까리

A j u k k a r i

감독 홍덕표 상영시간 15분 제작방식 2D 디지털 애니메이션



## 줄거리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란다!”**

내복을 막 입기 시작한 초겨울, 준이네 엄마 아빠가 모여 심각한 토론을 벌인다. 아빠는 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첫눈 오는 날, 준이를 포경수술 시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엄마는 그보다는 준이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막 무가내인 아빠의 주장은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왜 꼭 아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준이는 괴롭기만 하다.

드디어, 첫눈이 내리고 아빠는 준에게 포경수술을 시키기 위해 집으로 뛰어온다. 아빠를 막으려는 엄마와 준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아빠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드디어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 그 동안 숨겨진 아빠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 내용 이해

이 작품은 어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습니다.

준이 아빠는 아직 포경수술을 안 한 아들 준이가 친구들에게 놀림 받고 평생 주눅이 든 채 살아갈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밤에 촛불까지 켜 놓고 준이 엄마랑 수술 시기를 의논하는 준이 아빠의 표정이 사뭇 심각합니다. 그에 비해 준이 엄마는 요즘도 그런 걸로 놀리나 싶어서 포경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준이 아빠는 어린 시절 포경수술을 안 해서 놀림 받은 기억을 떠올리며 포경수술을 해야 진짜 남자가 된다면서 첫눈이 오는 날 수술을 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진짜 남자’라는 말 자체도 ‘이성애자 남성입장’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지만 그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남자라면 무릇 어떠한 놀림에도 자신의 진모를 당당히 들어내고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는 비단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솔직히 드러내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당해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포경수술 문제를 의논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엿들은 준이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준이의 수술에 대한 공포심은 강제로 수술을 받게 되는 끔찍한 꿈까지 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수술 받기 싫다고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준이 아빠는 준이의 말은 듣지 않고 포경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함께 남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근거로 내세우며 막무가내 수술을 종용합니다.

준이 아빠는 꼬치 하나를 먹을 때도 남자다움을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준이 아빠가 왜 꼭된 남자다움에 집착하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들 준이와 목욕탕도 함께 가지 않고, 대학 시절 다비드 상을 훼손시킨 정황으로 보아 준이 아빠도 아직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포경수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그 반대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포경수술이 뭐라고 가족에게도 숨기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부러 더 강한 척하고, 죽어서도 쟁피할까봐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살아왔음에도 급기야 비뇨기과를 찾아야만 했을까요?

‘남자는 이래야 돼’ 또는 ‘여자는 이래야 돼’라는 성역할에 대한 어른들의 왜곡된 생각은 어린 이들에게도 전이됩니다. 목욕탕에서 만난 준이의 친구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여자는 생리를 해야 진짜 여자고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진짜 남자됐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나 남자로 태어나도 생리를 하지 않거나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여자나 남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어린 이들에게 조차 널리 퍼져 있다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양태가 복잡하고 그 뿌리는 공고해보입니다. 흔히 통용되는 ‘진짜 여자’ ‘진짜 남자’라는 말은 이미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가 반영된 말이며 누구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움츠러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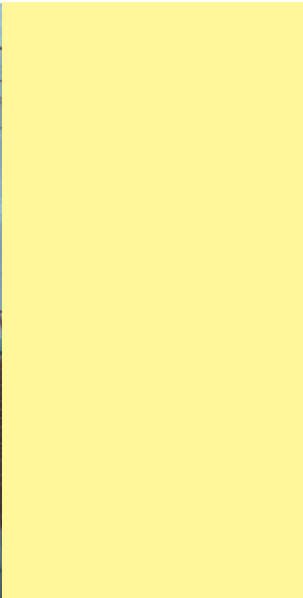


## 생각해볼까요?

1. 작품 속에서 남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대사들을 찾아보고, 왜 그것이 편견인지 얘기해봅시다.
2.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남자’ ‘진짜 여자’ 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들 말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말 속에 있는 부적절함을 찾아봅시다.  
예)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비단 눈물만이 아니다.’ (주로 남성화장실 소변기에 붙어 있는 문구),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사랑받지.’
3. 준이 아빠는 왜 포경수술을 해야 진짜 남자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4. 준이 아빠는 꼬치 하나를 먹어도 박력 있게 먹는 등 자신이 남자답다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 부모가 자식에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아동 인권침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6. 극중 인물 한 사람을 정해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 봅시다.

### 관련작품

· <다섯 개의 시선>중 ... 남자니까 아시잖아요 |류승원 감독



## 참고자료

### 포경수술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 - 스웨덴, 포경수술 법으로 금지

2001년 6월 1일, 스웨덴 국회는 의료인이 시행하는 포경수술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 법안은 200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으며 4년 후에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스웨덴에서는 18세 이전에는 수술을 전혀 시행할 수 없고, 18세 이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 호주 포경수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

호주는 여아의 성기 훼손과 같이 남아의 포경수술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단의 법조인들과 아동 권리보호운동가들은 유아 및 아동들에 대한 통상적인 포경수술로 자칫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 이의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드대학의 그레고리 보일 교수와 3명의 변호사가 '법과 의학'지에 기고한 글에서 남성의 포경수술은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이 여성의 성기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남성의 성기 훼손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은 동등한 인권보호라는 근본이념에 상치되는 것이라는 주장.

특히 어떠한 의료학회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경수술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1997/98 회계연도동안 호주 내에서 2만명의 소년들이 포경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체 남자 신생아의 15%에 이르는 수치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성기 포피의 50%를 제거, 오르가슴에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포경수술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의 판례 역시 부모가 아동의 포경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역시 피소 당할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호주 서부의 한 남성은 신생아에 대한 포경수술로 신체적, 성적 피해를 입어 36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호주 의학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브랜드 박사는 "현대 의학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포경수술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수술 집도를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포피가 귀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요도나 피부에 감염이 발생하는 아이들에게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s 서구선진국에서 여성포경수술과 같이 남성포경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포경수술을 무혈무통수술이라고 표시해 선전하는 것은 과대광고로서 의료법 위반이며 비뇨기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







# 아기가 생겼어요

Crossing

감독 이흥수, 이흥민 상영시간 15분 제작방식 2D 디지털 애니메이션

줄거리

“애 한번 나오려니까 주위가 다 나를 피하는거 같아”

“출산휴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육아 감당하면서 회사 다닐 수 있겠어?”

출산을 앞둔 은수는 그 설렘을 느끼기도 전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고민에 빠진다. 직장상사는 출산휴가를 내려는 은수에게 대놓고 퇴직을 들먹이고, 허리 지병이 있는 시어머니는 친구들의 부추김에 라스베이거스행을 꿈꾸며 은수에게 전설의 안마사가 있다며 여행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눈치!

육아문제를 두고 사방의 적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그녀에게 갑작스런 산통을 찾아오고, 은수는 앰블런스에서 직장상사와 시어머니를 조우하게 된다.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는 은수가 찾은 묘책은?

## 내용이해

이 작품은 두 가지 시간대의 이야기가 병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출산을 앞둔 은수가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하기까지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수가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양수가 터져 앰블런스에 실려 갔는데 그 안에서 회사 상사인 과장과 시어머니를 만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출산을 앞 둔 은수는 직장과 육아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아 주신다고는 했지만, 허리도 안 좋으신 어머니에게 같은 여자로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보육시설을 알아보지만 딱히 마땅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직장선배는 보육시설을 찾는 것, 정시 퇴근, 아이가 아플 때 등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그냥 눈 딱 감고 시어머니께 맡기라고 합니다. 회사에 애 둘 가진 여사원은 자신 밖에 없다는 직장선배의 조언이 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이들을 업어 키우느라 허리가 망가질대로 망가졌지만 자식들의 손주 양육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노인정에서 친구가 '착한 척 그만하고 양육비라도 달라고 하라'는 걸 보니 그동안 자식들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희생만 해왔던 모양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손주 봐주는 대신 라스베이거스 여행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란 또 다른 친구의 말에 솔깃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불어넣어줄 여행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육아문제 당사자의 한 사람인 남편을 제외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평등 세상이 왔다고 해도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의 삶을 재구성하지 않고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출산을 앞두고 은수는 주위가 다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출산 후 직장 복귀문제 역시 은수를 괴롭히고 있었겠지요. 남편이 출근한 뒤 베란다에서 바람을 맞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은수의 얼굴에 만감이 서려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신청했더니 은근히 퇴직을 권유하던 과장과의 일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다 은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며 직장 다니면서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설파합니다. 아이 키우는 직장여성들은 '애 때문에 지각하고, 애 보느라 피곤해서 회사에서는 뉘 놓고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되면 칼같이 나간다'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과장이 영화 첫 장면의 참치 횡집에서 말했듯이 일이라는 게 먹고 살자고 하는 것보다 행복해지



## 생각해볼까요?

1. 참치 횃집 주인의 '남편들이 잘하려면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줘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2. 은수는 남편이 출근한 뒤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 노인정에서 허리가 아파 누워있는 은수의 시어머니에게 친구는 '착한 척 그만하고 양육비라도 달라고 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4. 은수의 직장상사는 '우리 회사에 내 나이 때 여자들 중에 결혼한 사람 나 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5. 출산을 앞둔 은수는 왜 주위가 자신을 다 피한다고 느꼈을까요?
6. 은수가 출산휴가 신청 때문에 과장과 이야기를 나눌 때 창밖으로 트럭과 자동차가 충돌합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며 사방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장면들을 은수의 심리상태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봅시다.
7.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육아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참고자료

### 인턴 출산휴가 수련기간 인정 인권위 복지부장관, 병협회장에 권고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2개월간의 인턴 수련 기간 중 출산 휴가로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수련기관이 당사자에게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출산휴가에 따른 연장 근무는 부당하다는 유모씨의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지니고 있어 3개월 출산휴가는 수련기관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여성인턴의 3개월 산전후 휴가를 12개월의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인턴 수련기간은 복지부와 병협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에 따른 인턴 수련기간 1년을 정하고 있으며 여성 인턴의 산전 휴가 사용의 경우 지난 2002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에 따라 1년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6개월 연장근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은 근무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돼야하며 추가 수련 6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 김대성 회장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여성인턴의 수련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김주경 사무총장도 인권위의 결정은 수련 전공의들이 근로자라는 인식을 심어 출산 휴기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출산휴가와 수련기간에 대한 내부안을 만들어 출산 휴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이를 수련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병협측에 협의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업저버 News 2005-3-14



#### 관련작품

- 〈별별이야기〉중 ... 그 여자 네 집 | 김준·박윤경·이진석·장형윤·정연주 감독
- 〈세 번째 시선〉중 ... 당신과 나 사이 | 이미연 감독

네 번째 무지개



# 샤방 샤방 샤랄라

Shabang Shabang Shalala

감독 권미정 상영시간 17분 제작방식 2D 디지털 애니메이션

## 줄거리

“야 밧줄머리! 애 좀 묶게 니 머리 좀 빌려줘!”

“웃기시네, 밧줄머리 주제에!”

푹푹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은진이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은진이가 언제나 쑹쑹 땀은 머리를 하는 것은 사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서이고, 은진이의 머리가 심하게 곱슬거리는 이유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엄마를 닮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은진이는 엄마를 무지 사랑하지만 친구들에게 엄마가 필리핀인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는 않다. 어느 날 학부모회의에 부모님을 모셔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은진이는 점점 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던 중 은진이는 곱슬머리가 샤방샤방 샤랄라한 긴 생머리로 변해 기뻐하지만 엄마를 잃어버린다. 악몽을 꾸는 것이다. 마침내 학부모회의 날 아침, 엄마에게는 아직 학부모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은진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 내용이해

등교준비로 분주한 아침입니다. 부산을 떨며 왔다갔다하던 은진이는 엄마에게 머리를 뺨아달라며 얌전히 앉습니다. 은진이에게는 머리를 뺨는 일이 제 시간 등교보다 중요한 모양입니다. 은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도 머리끈이 풀렸다는 친구의 말에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가 머리를 묶습니다. 풀어진 머리를 묶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은진이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은진이는 등교 전에 엄마와 동생 은수에게 작별 뽀뽀를 잊지 않을 만큼 상냥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친구를 구해주는 기지가 있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은 발랄한 친구인 거 같은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울까요? 은진이의 표정은 학부 모회의 안내장을 받아들고 더욱 어두워지는데요. 경쾌한 성격의 은진이의 마음 한 구석에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나봅니다. 은진이의 마음을 단짝 친구 혜남이는 눈치를 챘나봅니다. 은진이에게 귓속말로 은진이의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마음에도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차별에는 눈에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차별이 눈에 보이는 차별이라면 심리적, 정서적인 차별은 사회 구성원들의 무의식과 의식에 내면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끈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진이와 혜남이가 필리핀에서 온 은진의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며 하교하는 길에 다른 친구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친구들은 '♪아랫집 윗집 사이로 율타리는 있지만...(중략)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노래에 맞춰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진이네 반은 태극기 그리기 수업을 받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에서 단일민족

임을 강조하는 노래와 태극기 그리기만을 할 경우는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주민을 배제하고 억지 동화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서 우리 정부에게 단일민족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 것과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들을 초·중등학교의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 생각해볼까요?

1. 학부모회의 안내장을 받아든 은진이의 얼굴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2. 은진이의 이웃 한 분은 은진이네에게 ‘필리핀은 물고기만 먹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3. 은진의 엄마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 기철이처럼 은진이에게 ‘재네 엄마 진짜 더럽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5. 작품 속에 드러난 차별적 언사들을 찾아보고 왜 그런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6. 은진이나 은진이의 엄마에게 엽서 한 장 써볼까요?

### 관련작품

- 〈여섯 개의 시선〉중 … **밀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 박찬욱 감독
- 〈별별이야기〉중 … **자전거 여행** | 이성강 감독
- 〈세 번째 시선〉중 … **잠수왕 무하마드** | 정윤철 감독
- 〈시선 1318〉중 … **달리는 차은**



## 참고자료

### 89만명 ‘외국인 주민’ 총인구100명 중 1.8명꼴

현재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숫자는 89만명, 전체인구에서의 비율은 1.8%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29일 공개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외국인은 89만134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43만7727명(49.1%), 결혼이민자가 14만4385명(16.2%), 국제결혼가정자녀는 5만8007명(6.5%), 유학생이 5만6279명(6.3%)이었고, 상사 주재원 등 나머지가 17만1104명(19.2%)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4.2%, 여성이 45.8%로 남성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는 남성이 68.9%, 결혼이민자 가운데는 여성이 88.4%로 각각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운데 6만5511명(7.4%)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인이 됐으며, 76만7823명(86.1%)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조선족)가 37만834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2.4%에 이르렀다. 또 중국 13만7441명(15.4%), 베트남 7만7194명(8.7%), 필리핀 5만1552명(5.8%)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태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대만 순서였다. 외국인들의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 26만명, 경기도 27만8천명, 인천이 4만9천명 등으로 전체의 65.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겨레 2008-07-29 김규원 기자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들 국제결혼 41%, 나이 차 9.8살

외국인 신부와와의 결혼은 한국 농촌의 전형적인 결혼 형태다. 2007년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결혼 가운데 41.0%가 국제결혼이었다(통계청). 옛 행정자치부의 2007년 4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총 12만6955명으로 이 가운데 12.5%인 1만5847명이 농촌 지역(군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8.0%가 여성이다.

농촌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최근 조사는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로 전국 1177가구가 조사 대상이 됐다(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2006년). 이 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는 전체 결혼이민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동포와 중국 한족의 비율이 적다. 대신 베트남 출신이 25.6%, 일본 출신이 12.1%, 필리핀 출신이 10.2%, 타이 출신이 3.7%로 동남아 국가와 일본 출신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평균연령을 비교해보면 배우자가 평균 9.8살 많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31.1살인 데 비해, 배우자의 평균연령은 40.7살이다.

교육 수준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중 중졸 이하가 29.0%, 고졸은 42.7%, 전문대졸 이상은 26.6%이다. 배우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중 77.8%가 배우자와 교육 수준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수의 체류 기간이 2년이 안 된다. 1년 미만인 경우가 30.6%이며 2년 미만인 경우가 23.7%로, 54.3%가 한국 생활이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미



# 메리 골라스마스

Merry Golasmas

감독 정민영 상영시간 10분 제작방식 2D클레이 애니메이션

## 줄거리

“진짜 산타를 모십니다! 100% 선물 보장!”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산타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소박하고 뜻깊은 선물을 고민하지만 요즘 아이들 취향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그러던 중 한 백화점에서 낸 ‘진짜 산타클로스 선발’ 광고를 보게 된 산타들은 거기에 응시하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확보하려고 한다. 모두들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백화점의 ‘진짜 산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가짜 산타가 진짜 산타로 선발되고, 낙방한 진짜 산타들은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려 썰매를 타고 떠난다.

## 내용 이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꽃감, 손뜨개 목도리, 목각인형 등을 준비하는 산타들의 외모가 다양합니다. 산타라고 하면 새하얀 피부에 눈 같은 수염, 볼룩한 배의 할아버지 산타가 익숙한데요. 이 작품속의 산타들은 여성, 장애인, 검은 피부, 작은 키, 사투리 사용 등 익히 보아오던 산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요즘 어린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 산타들은 어린이들의 구미에 맞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하기 위해 백화점 산타 선발시험에 응시합니다. 진짜 산타를 구한다는 전단광고 지에는 100% 선물보장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산타가 있습니다. 턱과 코밑에 가짜 수염을 붙이고 산타로 변장을 한 모습이 그럴 듯 해 보입니다. 이 산타도 산타를 구한다는 전단지들 갖고 있는 걸 보니 산타선발에 응시할 모양입니다.

산타면접시험장은 별별 차별의 종합판입니다. 시험관은 피부색이 검은 산타, 키가 작고 어려보이는 산타, 여성 산타, 장애인 산타를 노골적으로 멸시합니다. 어려보인다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억지로 막대사탕을 물리는가 하면, 옷 속에 뭘 넣었나 싶어 여성 산타의 옷을 들춰보려고 합니다. 시험관의 태도가 너무 무례해서 시험관이 여성 산타의 옷을 들쳐보는 순간 여성 산타가 시험관의 머리띠를 향해 시원스레 편지 한 방을 날릴 때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험관의 태도는 더욱 심합니다. 아예 해당사항 없다는 듯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산타로 선발된 사람은 가짜 수염을 붙이던 남자인데요. 다른 산타들에 비해 장애물을 아예 넘지도 못한 사람이 진짜 산타로 선발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작 진짜 산타는 산타선발 시험에 낙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산타의 이미지는 흰 수염, 중키, 볼룩한 배, 백인, 남성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만약 그 기준 자체가 허황된 것이고 온당하지 못하다면?’이라고 이 작품은 묻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산타의 이미지는 코카콜라의 상업광고에 처음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타의 빨간색 털옷과 털모자 복장도 북반구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남반구의 12월은 여름인데 털옷을 입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짜 산타의 모습은 더욱 다양할 수도 있는데 오래된 관행과 편견 때문에 진짜 산타도 가짜 산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이미 굳어져버린 산타의 이미지에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과 차별이 범할 수 있는 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생각해볼까요?

1.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꽃감, 목각인형, 손뜨개 목도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2. 가짜 수염을 붙이던 남자가 진짜 산타로 선발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산타 선발 과정에 드러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3. 산타에 관한 이야기를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정보 검색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4. 여러분이 만약 시험관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산타를 뽑을지 이야기 해 봅시다.

### 관련작품

- 〈여섯 개의 사선〉중…그녀의 무게|임순례 감독|
- 〈별별이야기〉중…동물농장 |권오성 감독|



## 참고자료

### 우린 산타 없이도 크리스마스가 행복해!” 유럽에서 전개되는 ‘안티-산타’ 운동, 왜?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누구나 선물을 한가득 싣고 찾아올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상점 앞에서 춤을 추는 산타 인형도, 산타 모자를 쓰고 인사하는 배우들도 크리스마스에겐 정경다.

그런데 이 같은 산타를 거부하는 운동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 ‘산타 없는 거리’를 선포하고 ‘산타 금지’ 스티커가 뿌려지는가 하면 ‘안티-산타 운동’ 홈페이지가 개설되기도 했다.

산타클로스를 거부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타는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산타클로스의 어원은 성 니콜라스(St. Nicolas)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 3~4세기경 소아시아의 파타라라는 지역에서 출생한 성 니콜라스는 일생동안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선행을 베풀었으며 어린이들 몰래 창문 너머로 선물을 던져줬다고 한다. 일부 유럽인들은 훗날 그의 이런 선행을 기려 그의 기일 전날인 12월 5일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사실 산타는 크리스마스와 별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중략)

산타의 두번째 ‘변신’은 1920년대 코카콜라 광고에서였다. 당시 코카콜라는 겨울철 콜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심하던 중 산타를 생각해냈다. 코카콜라는 근엄했던 산타를 ‘호-호-호’라고 크게 웃는 인자한 인상으로 바꿔놓았다. 산타에게 코카콜라의 상표를 연상케 하는 흰색 수염과 빨간 옷을 입힌 것도 이때였다.

(중략)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안티-산타’ 운동은 “코카콜라의 상술에서 나온 산타클로스 캐릭터가 예수의 탄생을 기린다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인터넷신문 <아나노바(Ananova)>는 지난달 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청 광장 앞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산타클로스 대신 ‘안티-산타’ 스티커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엔나시 대변인은 “이곳 상인들 사이에는 산타 관련 이미지를 사고 팔지 않는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며 “미국산 산타가 보고 싶은 사람은 코카콜라의 나라인 미국으로 가라”고 밝혔다.

‘안티 산타’ 운동은 성 니콜라스와 관련된 인형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받던 독일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시작했다.

(중략)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일 상인 연합’은 “크리스마스는 상인들에게 생계를 잇기 위한 필수적인 시기”라며 그들에게야말로 산타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밝혔다. HDE 상인연합에 따르면 연간 매출의 약 20% 가량이 11~12월에 이뤄진다고 한다.

지난 11월부터 체코에서 시작된 ‘안티-산타’ 운동은 이유가 남다르다.

체코의 광고작가들의 모임 ‘크리에이티브 카피라이터 클럽(CCC)’ 회원들은 “산타클로스가 체코의 전통적인 명절풍습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CC 회원인 데이비드 코니그는 지난 13일 <프라하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과 영국의 전통인 산타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나는 체코 내에 있는 산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체코의 전통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전날에 선물을 배달하는 이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기예수’라고 번역되는 ‘제지섹(Jezisek)’이다. 체코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만찬이 끝난 뒤 방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린다. 아기 예수는 마술처럼 선물을 배달하고 작은 종이 울리면 그가 떠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긴 수염과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와 달리 ‘아기예수’는 특별한 이미지가 없다.

(중략)

지난 11월 개설된 CCC의 ‘안티-산타’ 홈페이지(www.anti-santa.cz)에는 현재 수많은 체코인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이곳 홈페이지에서 ‘내가 산타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어떤 이들은 지구화와 상업화에 반대의를 표했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명절이 세속적으로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 거짓말

L i e

감독 박용제 상영시간 22분 제작방식 2D 절지 애니메이션

## 줄거리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내 손을 잡아줄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

어떤 이들에겐 너무나 평범하고 축복받아 마땅한 사랑과 결혼, 그러나 J와 친구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Y. 그리고 Y를 사랑하기에 그가 결혼을 해도 그 곁을 지킬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K,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부모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가게 된 3대독자 C, 동성애자라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거짓 연애를 시작한 B, Y와 계약결혼을 하게 된 R. 레즈비언인 R의 애인 G.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Y와 R의 결혼식은 과연 성공리에 끝날 수 있을까?

결혼식장에 찬란하게 걸린 무지개처럼 과연 이들의 인생도 일곱 빛깔 무지개일까?

## 내용이해

완전한 가을을 확인이라도 하듯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립니다. 싱글이고 동성애자인 J는 이 계절이 더욱 외롭게 느껴지는 듯 '차가운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내 '따뜻한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성애자들이 부러웠는지 J의 눈에는 연인들을 배경으로 해바라기들이 활짝 피어오릅니다. J는 이성간의 사랑이든 동성간의 사랑이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에 푸른 신호등이 켜져 있기를 동경했지만 동성애자에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다시 가을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신호를 받으며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은 모두 이성애자인 듯 바지와 치마를 상징적으로 입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 행동이 동성애자들에게는 늘 금지의 빨간 신호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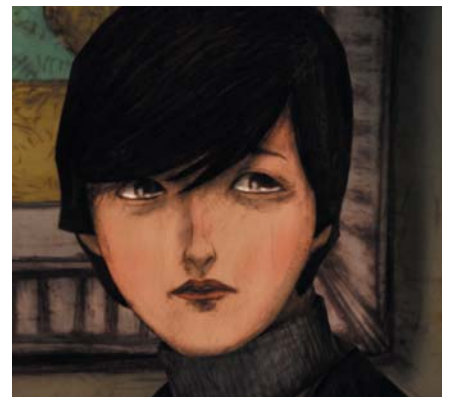
다음 장면을 보면 레즈비언 커플 R과 G가 길거리에서 겨안자 주변 사람들은 놀라고, 심지어 심한 말로 빈정댑니다. 떠나는 R을 G가 붙잡지만 R은 G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뿌리칩니다. G를 뿌리치고 떠나는 R의 길에 사람들은 Kang Kang 춤을 추며 응원하지만 R은 기쁘지 않은지 눈물을 흘립니다. R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듯 '거짓말'이라는 타이틀이 뜹니다. 이 작품은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을 해야 그래도 좀 살기 편해지는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Y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이성애자 중심 가부장제의 높은 벽이었습니다. 서른이 넘기 전에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동성애자 Y는 사랑하는 연인 K가 있지만 결국 이성과의 계약 결혼을 택합니다.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30대의 비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족들로부터 결혼충용을 받곤 합니다. 이성애자들에게도 녹록치 않은 결혼문제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이중, 삼중으로 괴로운 문제일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인식의 지평마저 좁은 상황이니깐요.

깔끔한 성격의 B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 질까봐서인지 점점 여성적으로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가짜 이성 애인을 만듭니다.

4대 독자인 C는 부모님께 동성애자임이 들통 나자 정신병원에 보내 집니다. C의 부모님은 동성애를 치료의 대상인 질병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애자가 이성에게 끌리듯이 동성애자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동성애자들이 가장 솔직하기 어려운 대상은 가족일 것입니다. J는 부모님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애써 모르는 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동성애자인 자식이 받아야 할 사회적 지탄과 명예가 격정스런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어쩌면 C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 생각해볼까요?

1.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왜 J는 가을을 '차가운 계절' → '따뜻한 계절' → '잔인한 계절'로 바꿔 말했을까요?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계절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고 온통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라고 또 다르게 말합니다. J가 그렇게 가을을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J의 심리와 감정선을 따라가며 말해봅시다.
2. G를 뿌리치고 떠나는 R의 길에 캉캉 춤을 추며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데도 R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3. Y에게 결혼을 명령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Y보다 훨씬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Y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볼까요?
4.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5. J의 아버지는 왜 J의 누나의 뺨을 때렸나요?
6. J는 왜 부모님께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7. 마지막 장면에서 Y와 K, R과 G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동차 위로 풍선이 날아가고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무지개 빛깔의 수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봅시다. 또 무지개와 동성애의 관련성도 찾아봅시다.



## 동성애 분열국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성적 변태'로 취급했던 우리 사회 주류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커밍아웃'을 하는 연예인·정치인이 생겨나고,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나 TV 드라마가 인기를 끈다. 한국표준질병분류(통계청)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교육부)는 동성애를 질환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를 차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외피를 한 꺼풀만 벗겨보면 상황은 다르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공공연한 또는 은밀한 비난과 폭언은 쉽게 접할 수 있다. 학교·직장·군대 등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힌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상상해보라. 동성애 커플은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 연금, 사회보험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동성애자임을 '하우팅'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뜯는 범죄까지 종종 벌어진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권고로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했지만, 보수 기독교계는 금지되는 차별 사유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이 법의 제정은 지지부진해졌다.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라는 것이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이던가.

반면 장구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들의 모임인 '유럽연합'은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을 통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만들었고, 2000년 '유럽평의회' 의회는 유럽 각국에 대해 동성애자 차별 금지, 학교·병원·군대·경찰 등에서 동성애 혐오를 없애는 교육을 할 것, 그리고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급의 나라에서는 거의 다 실현되어 있다. 가까운 대만도 이 요청을 수용하는 법을 제정했다.

'퀴어 퍼레이드'의 화려함과 독특함을 보는 것은 즐기면서도 자신 바로 옆의 동성애자는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의 분열된 머릿속은 정돈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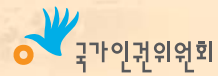
한겨레21 2008-8-7 조국 한겨레21인권위원·서울대 법대 교수





- 이 자료는 〈여섯 개의 시선〉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학습지도안을 만들때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인권문화콘텐츠가 우리 사회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용 후 활용내역(수업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향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권문화마당    [culture.humanrights.go.kr](http://culture.humanrights.go.kr)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인권교육본부 시민교육팀  
전화 02 2125 9893 | 팩스 02 2125 9898  
전자우편 [civiledu@humanrights.go.kr](mailto:civiledu@humanrights.go.kr)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